

셰프 꿈꾼다면... 한국서 '폴 보퀴즈' 학위 따는 우송으로

(세계 최정상급 佛조리대학)

우송대 - 폴 보퀴즈 공동학위 과정 9월 개설

세계적인 셰프 필립 바크망이 우송대에서 조리 시연 및 특강을 진행한다. 그는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인 세인트 레지스 보라보라 리조트(St. Regis Bora Bora Resort)의 라군(Lagoon) 등 프랑스와 미국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 총주방장·주방장 등을 역임한 '스타 셰프'다.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필립 바크망 등 프랑스 리옹의 세계 최정상급 조리대학인 '폴 보퀴즈(Institut Paul Bocuse)' 현지 캠퍼스 교수를 초청해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재학생과 조리전문가 대상 조리시연 및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세계 폴 보퀴즈와 공동 정식 학위과정 개설을 앞두고 양 대학의 원활한 교류와 교육협력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폴 보퀴즈 공동 학위과정 개설은 국내에서는 우송대가 유일하다. 우송대는 호텔외식조리대학 및 'Sol International School' 조리관련전공 2학년을 대상으로 50명(2017년은 25명)을 선발해 일정 기간 영어 집중 교육 후, 3년간 프랑스 현지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한다. 학생들은 교육 이수 뒤 졸업하면 양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싼 비용을 들여 프랑스로 유학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프랑스 요리를 배워 세계적인 요리사로 성장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국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우송대측 설명이다. 우송대는 이를 위해 2015년 프랑스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17개 국가의 최고 외식조리대학들로 구성된 글로벌 외식조리대학협의회(Institut Paul Bocuse Worldwide Alliance)의 15번째 멤버로 가입했으며 이후 폴

조리전공 2학년 50명 선발해 영어집중교육 글로벌 인재로 3년 수료면 2곳 모두서 학위

'미슐랭 3스타' 세계적 셰프 필립 바크망 현지캠퍼스 교수 프랑스 요리 조리시연·특강도

보퀴즈 및 회원 대학들과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재학생 조리대회 및 연수 파견 등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4명의 폴 보퀴즈 재학생들이 글로벌조리학과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이자 프랑스 폴 보퀴즈 조리대학의 교수인 필립 바크망은 레스토랑 르 샤토 데스크리몽, 네그레스코 호텔 샹트 클레르 레스토랑 등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레스토랑과 미국과 프랑스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 총주방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는 폴 보퀴즈에서 전문가 트레이너 셰프로 자신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필립 바크망 교수는 세계미식가협회 회원으로 각 나라의 전통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리 전공 학생들과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수준 높은 프랑스 요리를 보여 줄 것으로 알려져 재학생들과 조리전문가들의 큰



우송대 글로벌조리학과 학생들이 외국인 교수와 함께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우송대학교)

기대를 받고 있다.

존 엔디컷 총장은 "폴 보퀴즈 공동학위과정 개설로 우송대 조리 관련 학과들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필립 바크망 교수 초청 요리특강이 그 저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송대는 지난 1월 프랑스 폴 보퀴즈와 정식 학위과정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폴 보퀴즈가 해외에 정식 학위과정을 개설한 것은 우송대

가 최초다. 우송대 관계자는 "폴 보퀴즈가 우송대의 특화된 조리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글로벌 조리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송대는 지난해 6월에는 폴 보퀴즈와 학술교류 협약도 체결했다. 교수 및 학생 교류, 폴 보퀴즈대학에 재학생 연수 파견, 교수 세미나 개최 및 월드와이드 얼라이언스(Worldwide Alliance) 멤버 14개 조리대학들 간 교육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필립 바크망 주요 경력

- 세인트 레지스 보라보라 리조트(St. Regis Bora Bora Resort) 레스토랑 라군(Lagoon·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수석주방장
- 프랑스 니스의 Palace Hotel Le Negresco 레스토랑 Chantecler (미슐랭 2스타) 부주방장
- 미국 The Peninsula New York 호텔 레스토랑 The Modern (미슐랭 2스타) 주방장
- 프랑스 폴네시아 인터컨티넨털 부티크 호텔 레스토랑 Bora Bora 수석주방장
- 프랑스 Relais & Chateaux 외 미슐랭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셰프
- Bambou House 레스토랑 운영
- 2012~현재, 프랑스 리옹 폴 보퀴즈(Institut Paul Bocuse) 교수(전문가 트레이너 셰프)

등 내용을 담았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외식조리 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 폴 보퀴즈 단기연수 프로그램 확대 추진과 우송대에서 인스티튜트 폴 보퀴즈 월드와이드 얼라이언스(Institut Paul Bocuse Worldwide Alliance) 소속 학생들을 초청해 세계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및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승 기자

4차 산업혁명 발 학과개편... 우송대, 엔디컷국제대학 개원

소프트파워 인재양성 목표 IoT·빅데이터 비즈니스 등 혁신적 글로벌 커리큘럼 1개 학과·4개 학부로 구성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학과개편을 단행한 새로운 엔디컷 국제대학을 지난 3월 개원했다.

엔디컷국제대학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AACSB 인증획득과 폴 보퀴즈 월드얼라이언스 멤버 선정 등 우송대 글로벌 교육에 공헌한 존 엔디컷 총장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아 아시아 최고의 국제 대학을 목표로 설립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재학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학과를 개편했기에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우송대측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 혁신기술, 정보가 융합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며 각 분야의 지식을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도구를 활용, 창의

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송대는 국제화에 역점을 두기 시작한 2007년, 존 엔디컷 총장을 초빙하면서 글로벌·특성화 교육과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글로벌 명문 대학을 목표로 삼아왔다. 2007년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을 설립하면서 유학 갈 필요가 없는 정도의 글로벌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4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과 생활하는 다문화 교육환경, 해외 명문대 출신의 교수진, 100% 영어강의, 토론회 선진 커리큘럼, 해외 우수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등 혁신적인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완성해왔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조리, 호텔, 철도, 의료서비스경영, 비즈니스, 미디어 영상, 글로벌외식창업의 특성화 분야로 확장해 해외취업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00% 영어로 강의하는 솔 인터내셔널 스쿨(Sol International School·SIS)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대표외식조리대학인 폴 보퀴즈(Institut Paul Bocuse)로부터 월드와이드 얼라이언스(Worldwide Alliance) 멤버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우

송대는 4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 약 1500명이 재학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했다.

지난 3월 2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제임 중언 총장의 이름으로 명명한 엔디컷국제대학(Endicott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개원 선포식이 열렸으며 그 자리에는 인시아드경영대학장을 역임한 세계적 석학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하얏트 인터내셔널, 닛산 등 세계 우수 기업들의 자문위원을 지낸 혁신·마케팅 기업 컨설턴트인 태국 쉐람콘대학교 썬신경영대학원장 다파 제인 박사(Dr. Dipak C. Jain)를 비롯한 7개국 11명의 해외 석학들이 참석했다. 우송대는 이들 석학이 우송대와 엔디컷국제대학이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석학은 다음달엔 'Industry 4.0: Impact and Opportunities for Asia (4차 산업혁명: 아시아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 방안 등에 토론했다.

엔디컷국제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점차 영어강의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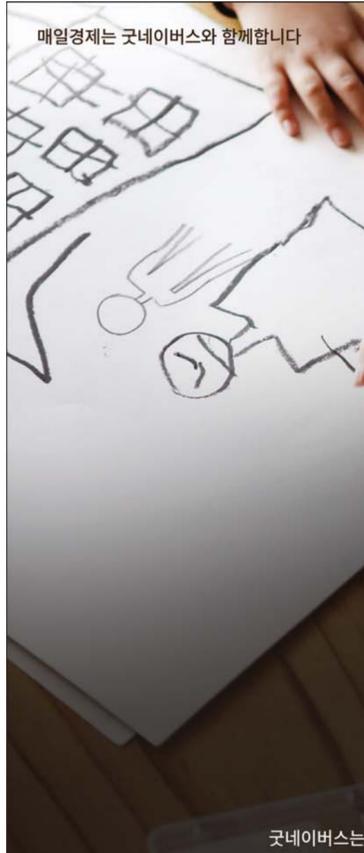
교수진 중 약 50%는 외국인이다.

학과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와 매니지먼트학부(Management studies), 기술과학학부(Technology studies), 국제학부(International studies), 자유전공학부(Interdisciplinary studies) 등 1개 학과와 4개 학부로 구성돼 있다.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산업이 중요시 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혁신 마인드 교육을 강화한다. 인문, 역사,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교양과 기초학문의 토대 위에 경영, 국제학, 정보기술학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이를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한다.

김홍기 엔디컷국제대학장은 "엔디컷국제대학이 아시아 최고의 국제대학이 되기 위해 세계 36개 대학으로 구성된 세계국제관계대학(원)연합(APSIA) 멤버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고 혁신적·창의적 마인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전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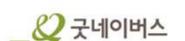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원 전경.



매일경제는 굿네이버스와 함께합니다

국내학대피해아동지원 캠페인



끔찍했던 학대의 시간 지호에게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여전히 학대 상황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지호... 그저 아픈 시간을 짐작해볼 뿐입니다.

지호와 같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 www.gni.kr

지호후원하기 검색

굿네이버스는 국내학대피해아동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